

ACC, 모두가 누리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한다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수어해설 영상 서비스 실시 문화취약계층 초청 투어 등 전문기관 협력...정확도 높여 "문화접근성 지속 확대할 것"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에 앞장선다.

2일 ACC에 따르면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수어해설 영상 서비스를 실시해 청각장애인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편의가 마련된다.

이번에 새로 제작한 수어해설 영상은 올해 개편한 아시아문화박물관에서 열고 있는 '몬순으로 열린 세계: 동남아시아의 항구도시'와 '전당 건립 아카이브-빛의 숲(Forest of Light)' 상설전시내 선 보인다. ACC를 방문한 청각장애인은 아시아문화박물관의 각 전시실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휴대전화로 쉽게 전시해설 영상을 만나볼 수 있다.

먼저 '몬순으로 열린 세계' 수어해설 영상에서는 계절풍 '몬순(monsoon)'을 따라 전개되는 사람들의 교역과 문화교류, 항구도시를 오간 이들이 만들어낸 고유한 삶과 예술작품을 소개한다.

이어 '전당 건립 아카이브-빛의 숲' 수어해설 영상에서는 ACC의 재미있는 건축 이야기와 공간별 특징을 알기 쉽게 보여준다.

ACC는 지난 6월 한국농아인협회광주시협회와 청각·언어장애인 문화접근성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약 중 하나로 이번 수어해설 영상을 함께 제작했다. 영상은 한국농아인협회광주시협회, 광주시수어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청각장애인이 수어해설사가 직접 영상 제작 및 감수 등 전 과정에 참여해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ACC는 지난 5~10월 청각장애인과 코다가족(부모 중 1명 또는 2명 모두



ACC는 아시아문화박물관의 각 전시실에 QR코드를 비치해 청각장애인에게 휴대전화로 전시해설 영상을 통한 작품 설명을 제공한다. ACC 제공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보호자에 의해 양육된 자녀) 등 총 250여명을 초청해 투어해설사와 수어통역사의 수어해설이 함께하는 'ACC 문화탐방 프로그램'을 10회 운영했다. 청각장애인과 코다가

족은 ACC 프로그램을 통해 '피카소 도예', '현장 속으로: 기억과 사건' 등 전시와 '속삭임의 식탁', '코레오 커넥션', '사랑에 빠진 뽀뽀' 등 공연, 그리고 '초록 초록 ACC 산책' 투어 프로그램 등을 체험했다.

이 외에도 지난 5~10월 시각장애인, 노년층, 자립준비청년, 신안군 낙도 어린이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취약계층 초청 투어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다. 매달 진행하는 'ACC 인문강좌'에 수어통역을 제공해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천하고 있으며, 휠체어사용자 전용 전동책상과 정보검색대 마련, 시각과 청각 약자를 위한 독서확대기, 화면낭독소프트웨어 컴퓨터, 공공보청기(소리증폭청취기) 등 독서보조장비도 갖춰 도서관 이용객의 편의도 돕고 있다.

이강현 ACC 전당장은 "이번 아시아문화박물관 상설전시 수어해설 영상 서비스 제공을 통해 많은 청각장애인이 ACC를 즐길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든 이들이 쉽게 ACC를 방문할 수 있도록 문화접근성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 기자** chan.park@jnilbo.com

광주시립창극단 기획공연 '송년 국악한마당'

1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민요·한국무용·판소리·타악 등

광주시립창극단의 기획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이 14일 오후 3시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개최된다.

공연은 광주시립창극단 장악부 남성 단원들이 민요 '방아타령'을 선보이며 시작된다. 이어 살풀이춤 이수자인 최창덕 명무의 '승무'를 감상할 수 있다. '승무'는 민속무용 국가무형문화제 제27호로 유려하고 단아한 춤사위가 일품이다.

세 번째 무대에서는 국가무형유산 제5호 무형유산 판소리 적벽가 보유자인 김일구 명창이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고백 이수자인 이태백 명고의 장단에 맞춰 적벽가 중 적벽강 불 지르는 대목을 들려준다.

네 번째 순서로는 무용부에서 '태평무'를 선보이고, 다섯 번째 순서로 장악부 여성 단원의 소리로 민요 '동백타령, 신사철가'를 올린다.

여섯 번째 순서는 단막 창극 '광한루'다. 광한루 단막극은 춘향전 중 초입 부분 대목이다.

마지막으로 타악부의 신명 판타지 '취(吹)와 타(打)'로 대미를 장식한다. 울림, 조화, 신명, 축제 등 총 4장으로 구성된 하늘을 울리는 대고와 땅을 울리는 나발 소리, 모듬북 합주를 통해 멋과 흥의 신명 판타지를 이뤘다.



광주시립창극단의 기획공연 '송년 국악한마당'이 오는 14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박승희광주시립창극단 예술감독은 "올해를 뜻깊게 마무리하고자 이번 기획공연을 마련했다. 내년에도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정기공연 등으로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광주시민들을 만날 계획이다"며 "모든 관객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5세 이상 관람가로 S석 2만원 A석 1만원이며 광주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티켓링크를 통해 예매할 수 있다. **박찬 기자**

국윤미술관, '무등산 예술산책' 결과발표전 개최

6~20일 국윤미술관 2전시실

국윤미술관은 '무등산 예술산책' 결과 발표전을 오는 6일부터 20일까지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광주시, 광주문화재단 후원 창작공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 8개월간 운영된 흥림창작스튜디오 '무등산 예술산책'에 참여했던 1기, 2기 작가들의 창작 결과물을 단체전으로 선보이는 자리다.

참여 예술인으로 손지원, 엄기준, 이두환, 이진상 등 4명의 작가와 최송아 평론가가 함께한다. 작가들은 워크숍, 세미나, 무등산 탐방을 통해 흥림창작스튜디오가 제시한 무등산을 주제로 한 작품을 작업했다. **박찬 기자**

지난 7월 1기 작가 손지원, 엄기준은 '무등 유토피아'를 전시 제목으로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냈다. 2기 작가 이두환, 이진상은 예술이 숨을 고를 수 있는 장소를 보여주는 작품을 지난 11월 '무등 퀘렌시아'를 통해 선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창작자와 기획비평가에게 주제 연구를 통한 작품의 심도를 높이고 일반 지역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받는다.

전시는 무료로 운영되며 정기휴무일인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윤미술관 홈페이지(<https://cafe.daum.net/yywol>)에서 확인하면 된다. **박찬 기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다정한 참견' 개최

3일~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디지털 역량 강화 등 6개 과정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예술교육 서로배움 '다정한 참견'이 3~6일 4일간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문화예술작은도서관에서 열린다고 2일 밝혔다.

문화예술교육 서로배움 '다정한 참견'은 지난 2022년부터 시작한 광주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또는 예술인 등을 대상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번 워크숍은 '나의 문화예술교육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글쓰기를 통해 자신만의 문화예술교육 철학과 가치를 탐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첫 날은 글쓰기를 통해 나의 문화예술교육 돌아보는 시간으로 개인의 경험과 활동을 성찰하며 출발점을 찾는다. 둘째 날에는 문화예술의 가치와 문화예술교육 정책 흐름을 살피는 시간으로 문화예술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정책 동향을 탐구한다. 셋째 날에는 문화예술교육 활동가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실습을 통해 실무 역량을 강화한다. 마지막 날은 문화예술교육 정체성 정립을 통한 글쓰기로 철학과 가치를 구체화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문가 1인과 문화예술교육 활동가 10~15명이 모여, 주제에

다른 그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이번 워크숍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임아영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컨설턴트 △고영직 문학평론가 △권수미 한국교원대학교 음악전공 교수 △손경년 예술경영 및 예술행정 전문가 △조은이 퓨처커넥터 대표 등이다.

노희용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나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는 순간,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누리집 및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찬 기자**

흥 많은 도깨비와 전통연희가 만나면?... '연희도깨비' 공연

내달 7~8일 ACC 어린이문화원 2024 ACC 공동기획 랩츠플레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올해 마지막 'ACC 랩츠 플레이' 공연인 국악 인형극 '연희도깨비(사진)'를 오는 7~8일 이틀간 ACC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작품은 '흥부와 놀부', '도깨비와 개암나무' 등 익숙한 전래동화를 엮어 내

용을 새롭게 구성했다. 욕심 많은 형 놀부와 마음씨 착한 동생 흥더기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갑작스럽게 도깨비와 마주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공연은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함께 전통연희 등 다양한 장치가 더해지며 흥을 돋을 예정이다. 무대에서는 막대를 조정해

움직이는, 우리나라 유일의 전통 인형극인 '덜미'와 대접 돌리기 '버나', 탈놀음 '덧뵈기' 등 신명 나는 남사당놀이 펼쳐진다. 국가무형문화제 제3호 남사당놀이 '덜미'는 '꼭두각시놀음'으로도 알려져 있다. 여기에 태평소와 피리 등 흥겨운 국악 선율과 익살스러운 재담 등 관객들에게 다양한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희도깨비'는 7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8일 오후 2시 총 3회 공연되며, 관람료는 1만5000원이다. 4세 이상이면 누구나 관람할 수 있고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에서 예매하면 된다.

한편 ACC 랩츠 플레이는 국내 및 지역 예술단체와 상생을 통한 극장 및 어린이공연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공연 프로그램 공모사업이다. 올해는 종로아일랜드극장과 협력으로 총 5편의 공연을 선정해 무대에 올렸다. **박찬 기자**

